

永郎詩集의 版本研究

—表記體系와 個人詩語分析—

鄭 淑 姬*

I. 序 言

(1) 問題提起

永郎 金允植(1903~1950)은 政治史的 狀況과 밀착되고 現내용주의에 깊이 침윤했던 식민지시대 文學史에 있어서 ‘純粹文學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를 提起함으로써 새로운 純粹詩의 한 시범을 보여준 ‘詩文學派’의 代表的인 한 시인이다. 詩人 永郎은 1930년 《詩文學》創刊號에 <동백님에 빛나는 마음>¹⁾ 외에 13편의 詩를 발표함으로써 화려한 그의

* 국어국문학과 강사.

1) 《詩文學》創刊號에 <동백님에 빛나는 마음> 외에 13편의 詩 發表.

- | | |
|--------------------------------|---------------|
| ① 동백님에 빛나는 마음 | ② 어덕에 바로누어 |
| ③ 누이의 마음아 나를보아라 | ④ 뵈지도 안는 입김 |
| ⑤ 님두시고 가는길 | ⑥ 문허진성터 |
| ⑦ 저녁세 외로운 마음 | ⑧ 풀우에 매저지는 이슬 |
| ⑨ 푸른향물 흘러버린 | ⑩ 쫓은 길가에 무덤 |
| ⑪ 除夜 | ⑫ 쟁쟁한 뵐아페 |
| ⑬ 원방 (一名 <한박눈>, 혹은 <바람이 부는대로>) | |

※ ④~⑩은 四行小曲七首임.

《詩文學》2號에 <내마음 고요히 고흔봄 길우에> 외에 9편의 詩 發表.

- | | |
|---------------------------|-----------|
| ① 내마음 고요히 고흔봄 길우에 | ② 쏨바티 봄마음 |
| ③ 허리띠 매는 시악시 | |
| ④ 못오실 님이 (『永郎詩集』간행 때 누락됨) | |
| ⑤ 다정히도 부려오는 | ⑥ 향내엄다고 |
| ⑦ 어덕에 누어 | ⑧ 가늘한 내음 |
| ⑨ 하날가스다온데 | |

※ ③~⑦은 四行小曲五首임.

④는 『永郎詩集』간행 때 누락됨.

詩作活動의 幕을 열었으며, 生前에 『永郎詩集』²⁾, 『永郎詩選』³⁾ 등 두권

《詩文學》3號에 <내 마음을 아실이> 외에 7편의 詩 發表.

- | | |
|---------------|---------------|
| ① 내마음을 아실이 | ② 밤사사랑 그립고야 |
| ③ 눈물속 빛나는 보람파 | ④ 빈 프캐트에 손찌르고 |
| ⑤ 바람에 나붓기는 짙님 | ⑥ 편은 가슴을 훤히 |
| ⑦ 시내수물소리 | |

※ ②~⑥은 四行小曲五首임.

以上으로 《詩文學》1, 2, 3號에 총 29편의 시 작품을 發表했음.

《文學》1934년 1월 《詩文學》의 후신으로 龍兒가 刊行, 詩傳門誌, 1號, 2號, 3號가 나옴.

《文學》創刊號에 <그밖에 더 아실이> 외에 四行小曲六首發表.

- | | |
|---------------|------------|
| ① 그밖에 더 아실이 | ② 밤이면 고종아리 |
| ③ 저곡조만 마조 호동글 | ④ 山골을 노리터로 |
| ⑤ 사랑은 기프기 | ⑥ 빠른 철로에 |

※ ⑥은 知識產業社版자행 때 누락됨. (<웃으실님> <빠른 철로에> 가파
지고 四行詩 27편만 수록됨.)

《文學》3號에 <佛地菴抒情> 외에 2편의 詩 發表.

- | | |
|-----------------------------------|-------------|
| ① 佛地菴抒情 | ② 모라이 외기까지는 |
| 이상으로 《文學》1號와 3號에 총 8편의 詩作品을 發表했음. | |

:2) 『永郎詩集』※ 同詩集을 이후부터 本稿에서는 『詩集』으로 略記함. 1935年
龍兒에 의해 刊行된 詩文學社版으로 永郎의 魔女詩集. 53편의 작품이 수
록되었고 그 중 28편은 四行小曲임. 內容은 《詩文學》誌와 《文學》誌에 게
재했던 37편의 作品 중에서 <웃으실님>을 제외한 36편과 새 作品 17편을
포함해서 총 53편으로 되어있음.

『永郎詩集』에서 새로 발표된 17편의 詩作品들은 다른 詩작품과 마찬가
지로 제목은 없이 작품번호만으로 수록되었는 바 그들 작품의 목록들은 다
음과 같음.

- | | |
|-----------------------|-----------------------|
| ① <4. 뒤 눈길에 쏘이여소> | ② <7. 눈물에 실려가면> |
| ③ <15. 숨향기 숨길을> | ④ <19. 그색시 서럽다> |
| ⑤ <23. 마음의 조령한 길> | ⑥ <27. 미움이란 말속에> |
| ⑦ <36. 생각하면 봇그려운> | ⑧ <37. 온몸을 감도는 붉은 껏풀> |
| ⑨ <40. 그대는 호령도 하실만하다> | ⑩ <41. 아파누어 혼자> |
| ⑪ <47. 물보단 흐르고> | ⑫ <48. 降仙臺 둘바늘끝에> |
| ⑬ <49. 사개틀닌 古風의 빛마루에> | ⑭ <50. 미당암 밝은새암을> |
| ⑮ <51. 황홀한 달빛> | ⑯ <52. 杜鵑> |
| ⑰ <53. 青明> | |

※ 제목 앞의 일련번호는 『永郎詩集』에 수록될 때 붙인 作品 번호이고,
작품제목은 後에 나온 『永郎詩選』에 붙여졌거나 그 이후의 詩集에 붙여진
제목을 인용했음.

:3) 『永郎詩選』: 同詩集을 이후부터 本稿에서는 『詩選』으로 略記함. 1949년 徐
廷柱에 의해 出판된 中央文化社版으로 永郎의 第二詩集임. 60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에서 43편은 『詩集』의 것을 再錄한 것이며 나머지 17편

의 詩集을 남겼다. 處女詩集이기도한 『詩集』에는 53편의 作品이 수록되었고, 第二詩集인 『詩選』에는 『詩集』에 수록했던 作品 43편과 新作品 17편을 합쳐 모두 60편이 수록되었다. 그러므로 두 詩集에 수록된 詩作品의 총편수는 70편 밖에 안된다. 그런데 近年本인 『모란이 피기까지는』⁴⁾에는 총 86편의 詩作品이 수록돼 있다.

永郎의 詩的 情緒의 基底는 抒情的 리리시즘(lyricism)과, 아순풀함, 애끈함, 조매로움 등의 아름다운 音感의 言語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다가 永郎은 南道의 鄉土의 方言과 傳統의 목소리인 固有語를 정교히 다듬어 詩語에 使用하여 韓國的 감수성을 심화하고 國語美를 계

은 『詩選』에 새로 수록된 것이다. 『詩選』에 새로 수록된 17편의 詩는 다음과 같다.

作 品 名	作品의 出版誌 年度
① <4. 五月	39년 《文章》7월호
② <5. 五月 아침>	49년 《文章》9월호
③ <9. 낮의 소란소리>	40년 《女性》6월호
④ <10. 빛깔환히>	39년 《女性》4월호
⑤ <13. 내홍진노래>	40년 《女性》6월호
⑥ <16. 수풀아래 작은 쌈>	49년 『永郎詩集』
⑦ <20. 땅거미>	48년 《新天地》10월호
⑧ <21. 짐>	40년 《人文評論》1월호
⑨ <23. 연 I>	39년 《女性》5월호
⑩ <24. 연 II>	49년 《白民》1월호
⑪ <27. 언땅 한길>	50년 《新思潮》1월호
⑫ <28. 복>	46년 東亞日報 12월 20일
⑬ <29. 바다로가자>	47년 民衆日報 8月 7日
⑭ <55. 한줌寄>	40년 《朝光》3월호
⑮ <56. 득을 차고>	39년 《文章》9월호
⑯ <59. 春香>	40년 《文章》11월호
⑰ <60. 忘却>	49년 《新天地》8월호

* 제목 앞의 일련번호는 『詩選』에 수록된 작품번호임.

4) 金澤東編著 『모란이 피기까지는』 文學世界社 1981년 8월 25일.

永郎의 9번째 詩集이며 86편의 作品이 수록됨. 詩集일 뿐만 아니라 金永郎全集, 評傳, 研究資料集으로서의 깊이를 지니고 있음.

발한 功勞를 지닌 詩人이기도 하다.⁵⁾ 그리고 안서, 素月 등의 詩의 韻律形式이 定型詩에 가까운 民謡調의 二音步(혹은 그의 倍數)格인데 永郎은, 三音步 내지 四音步格의 새로운 韵律形式을 그의 詩에서 시도한 점에서, 詩文學史上 重要한 의미를 부여한 詩人이다. 그러므로 카프文學에 대항하여 文學의 純粹藝術性을 強調한 ‘詩文學派’의 代表적인 한 사람인 永郎의 詩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이 땅의 올바른 詩史의 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에 本研究者는 永郎詩 研究의 한 始發點으로서 그의 詩集의 版本과 表記體系를 研究 考察하여 그 確定版本(Definition Edition)을 提示하고자 한다.

(2) 研究史

올바른 永郎詩研究를 위해서는 既刊行된 版本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의 詩集의 確定原本의 提示를 하는 일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既刊行된 永郎詩集의 版本은 9개이다.⁶⁾ 이들 版本들 간에는 수록된 作品의 편수, 作品의 題目, 그리고 表記體系 및 面積체제 등의 等差가 심하다.

5) 鄭漢模, 「서정주의의 한 극치」(金永郎論)《文學思想》24호 1974.9.

金允植, 「永郎論의 한 행방」『心象』제2권 12호 1974.12.

金容稷, 「南道가락의 純粹熱情」《文學思想》24호 1974.9.

徐廷柱, 「永郎의 抒情詩」《文藝》2권 3호, 1950.

朴龍喆, 「고귀한 感情과 表現의 능력」《詩文學》創刊號 1930.

鄭○○, 「詩와 감상」《女性》3권 8·9월호 1938.

鄭珣永, 「金永郎論」語文論集 중앙대국어국문학회, 1975.2.

金澤東, 韓國現代詩人研究 民音社, 1977.

李姓教, 「金永郎研究」성신여사대인문과학연구논문집, 1973.12.

6) 既刊行된 永郎의 詩集.

① 『永郎詩集』詩文學社, 1935.11.

② 『永郎詩選』中央文化社, 1949.10.

③ 『永郎詩選』正音社, 1956. (中央文化社版과 同一)

④ 『韓國詩人全集 卷 5』新丘文化社, 1959.4.

⑤ 『永郎詩集』博英社, 1959.11. (新丘文化社版과 類似)

⑥ 『永郎·龍兒 시선』世運文化社, 1970.9.

⑦ 『모란이 피기까지는』三中堂文庫本, 1975.3.

⑧ 『金永郎·朴龍喆 外』知識產業社, 1981.6.

⑨ 『모란이 피기까지는』文學世界社, 1981.8.

初刊本인 『詩集』은 作品의 頭目은 없이 53편의 作品이다 一連番號만을 붙여서 出刊되었다. 그런데 『詩選』에서부터 작품에 일관성이 없이 作品 頭目이 붙여졌고, 심지어는 한 作品에 2~3개의 작품제목이 시집마다 다르게 使用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⁷⁾ 이는 永郎詩의 정확한 研究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初刊本 『詩集』이래 近年本 『모란이 피기까지 는』에 이르는 아홉 권의 版本들을 考察해 보면 그들의 刊行時に 原作의 典考없이 既刊行本을 상호 답습유통하여 왔음이 지적된다. 그러므로 永郎詩研究는 그 細部에 있어 많은 편차와 오류를 내포할 지속적인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光復이전까지만하여도 永郎詩에 대한 체계적인 論議가 별로 없었다. 1950年代에 이르러서야 徐廷柱 등에 의해 永郎에 대한 文學史的 關心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6·25戰亂으로 인해 그 이상 빛을 보지 못했다. 1960年代에 와서 鄭漢模에 의해 永郎詩에 대한 本格적인 論議가 展開되었다.⁸⁾

7) 한 作品에 두 개 이상의 제목이 붙여진例.

①	②	③
바람따라 가지오고 동백님에 빗나는 마음 달마지 누이의 마음아나를보아라 원망 내마음 고요히 고혹봄 걸 우에 佛地菴抒情	풀소리 끌업는 강풀이 흐르네 빛깔환히 오-매 단풍들것네 한박눈 돌담에 소색이는 햇발 佛地菴	시내스물소리 달맞이 바람이 부는대로
호젓한 노래 아파누어 혼자 내 옛날 온 꿈이 발짓 농인마음	내흔진 노래 비는 마음 하날갓 다른데 낫의 소란 소리 땅 겹이	아파 누어 혼자 비노라

8) 鄭漢模, 「現代詩人論」(金永郎 편) —조밀한 抒情의 탄주—《文學春秋》1권 9호 1964.

이어서 金容稷⁹⁾, 金允植¹⁰⁾, 김현¹¹⁾, 金澤東 그리고 李姓敎¹²⁾ 등에 의해 永郎研究가 집중적으로 지속돼 왔다. 이러한 大部分의 論議는 研究 텍스트(Text)에 대한 주의깊은 省察이나 언급을 缺함으로써, 研究者가 참고한 版本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誤差와 誤謬가 빚어짐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에 있어서 永郎詩集의 版本 및 異本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論議는 金澤東의 『모란이 피기까지는』¹³⁾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여기에서 비로소 版本間의 異同, 誤差, 誤謬 등의 實例의 지적을 했으며, 表記體系에 있어 原本 및 原典의 復元을 시도하는 등 부분적인 성과를 이루해 놓았다.¹⁴⁾ 그러나 아직도 그에 대한 연구가 완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本研究者는 本稿에서 永郎詩集의 原本이 되는 初期本인 『詩集』¹⁵⁾ 과 『詩選』¹⁶⁾을 基本底으로 삼고, 初期本에서의 表記體系의 特性에서 비롯되는 古典的인 情感과 方言使用에 의한 그의 시의 豐托적 진술성이 많이 훼손된 中期本·『永郎·龍兒 시선』¹⁷⁾, 그리고 近年本의 『金永郎·朴龍喆外』¹⁸⁾ 및 『모란이 피기까지는』¹⁹⁾ 등 다섯가지 版本間의 異同을 考察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原本으로부터 變化된 純모를 살펴서 永郎詩集의 確定原本의 提示를 해보고자 한다.

II. 永郎詩集 概觀

지금까지 출간된 永郎詩集은 모두 아홉 권에 이른다. 이들을 出刊 時代順에 따라 概觀해보면 다음과 같다.

9) 金容稷, 「詩文學派研究」 韓國近代文學研究 서장래인문과학 연구소, 1969.

10) 金允植, 韓國現代詩論批(判永郎硯) 一志社, 1978.

11) 김현, 韓國現代詩文學大系 7—찬란한 슬픔의 봉— 知識產業社, 1981.6.

12) 李姓敎, 現代詩의 探索(金永郎論) (韓國現代詩에 나타난 豐托敘 연구), 1982.

13) 金澤東, 모란이 피기까지는(金永郎全集·評傳) 文學世界社, 1981.8.

14) 金澤東, Ibid., pp.332~340.

15)~22) 註 6) 참조.

첫번째 詩集은 1935年에 간행된 『永郎詩集』²⁰⁾이다. 同詩集은 永郎 生前에 朴龍喆에 의해 간행된 詩文學社版으로 총 53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두번째 詩集은 1949년 中央文化社版으로 간행된 『永郎詩選』²¹⁾이다. 同詩集은 永郎이 직접 徐廷柱에게 맡겨서 편찬한 것으로 총 60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詩集의 後尾에 徐廷柱는 다음과 같은 跋詞를 붙여 놓고 永郎의 韓國現代詩史上의 位置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 저 日帝三十餘年間의 원갓 有名을廻避하고 숨어서 이나랏말의 韻律만을 고르고 있든이의 選擇된 情緒들을 조용히 보라. 왜 그의 存在가 現代朝鮮抒情詩史上의 한絕頂이었던 「詩文學派」의 몇몇 巨星들 가운데에서도 가 장오래가야 하는가를 一般이 理解할 때는 벌써 가까워오면서 있다고 생각한다…….

永郎의 세번째 詩集은 그의 死後 6年, 즉 1956年에 간행된 正音社版 『永郎詩選』²²⁾인데 이것은 中央文社版의 異本이다. 두 시집은 出版年度·出版社名만 다를 뿐 内容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²³⁾ 同詩集에서 李軒求는 「再版의 序에 의하여」²⁴⁾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던 중 천만다행으로 1949년 발간된 兄의 自選인 『永郎詩選』의 紙型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하여 알아본 결과 奇蹟처럼 大韓印刷公社 창고 속에서 兩次의 敵侵을 받으면서도 이것만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의 天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正音社版이 中央文化社版과 같은 紙型으로 된 異本임을 記述하였다. 네번째 永郎詩集은 1956年에 간행된 新丘文化社版 『韓國詩人全集 卷⑤』²⁵⁾로서 총 70편의 作品이 수록되었다. 同詩集 後尾에 李軒求의 「金永郎 評傳」이 실려 있다. 다섯번째 永郎詩集은 1956년 博英社版 『永郎詩集』인데 이것은 新丘文化社版의 異本이며 총 70편의 作品이 수록돼 있다. 다만 편성체제만 일부 다를 뿐이다.

23)~24) 李軒求, 「再版의 序에 의하여」 『永郎詩選』 正音社, 1956.

25)~26) 註 6) 참조.

1960년대에는 특별히 다른 詩集의 出刊이 없었고 1970년대로 와서 永郎詩集은 새로운 관심 속에 世運文化社版『永郎·龍兒 시선』²⁶⁾이 나왔다. 同詩集은 永郎·龍兒詩碑建立委員會에서 만든 것으로 永郎의 作品은 총 71편이 수록됐다. 즉 同詩集은 그때까지 발견된 永郎의 詩의 全部를 수록한 것이라고 徐廷柱는 詩集 後尾의 跋詞²⁷⁾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이 詩選에서 永郎先生의 詩篇들을 그 全部를 다 수록토록 했다. 해방전에 나온 『永郎詩集』과 1949년 내가 편집한 『永郎詩選』 두 권의 詩篇들 밖에 누락되었던 것까지를²⁸⁾ 다 넣도록 했다……. (筆者傍點)

永郎의 일곱번째 詩集은 1975年 三中堂文庫版으로 刊行된 『모란이 되기까지는』²⁹⁾이다. 同詩集에는 총 71편의 作品이 수록되었고 世運文化社版과 同類의 詩集이다.

1980年代에서부터 비로소 좀더 발전된 양상의 永郎詩集刊行이 시도되었다. 즉 詩作品만이 아니고, 작품解說, 評傳, 年譜등을 함께 수록한 詩集이 출간되었다. 더우기 《文學思想》社에서 추진한 國文學資料發掘作業에서 이제까지 發見되지 않았던 永郎의 作品이 12편이나³⁰⁾ 발굴됨으

27) 徐廷柱, 『永郎·龍兒 시선』의 跋 世運文化社, 1970. 8.

28) Ibid. ‘跋’에서 ‘누락되었던 것까지’에 해당되는 작품이 〈웃오실님〉을 지적하는 것임. 註 11) 참조.

29) 註 6) 참조.

30) 《文學思想》通권 70호(1978. 7)에 發表된 後期詩 12편.

① 가야금 39년 《朝光》 5권 1호 1월.

② 거문고 39년 《朝光》 5권 1호 1월.

③ 墓碑銘 39년 《朝光》 5권 12호 12월.

④ 偶感 40년 《朝光》 6권 6호 6월.

⑤ 江濤 40년 《女姓》 5권 4호 4월.

⑥ *발짓 49년 《民聲》 5권 8호 8월.

⑦ *行軍 49년 《民族文化》 1권 1호 10월.

⑧ 池畔追憶 50년 《民族文化》 1권 2호 2월.

⑨ 어느날 어느때고 50년 《民聲》 6권 3호 3월.

⑩ 千理를 올라온다 50년 《白民》 21호 3월.

⑪ 五月恨 50년 《新天地》 5권 6호 6월.

로써 永郎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1년 6월, 永郎의 여덟번째 詩集『金永郎·朴龍喆外』가 知識產業社版으로 刊行되었다. 同詩集에는 79편의 작품이 수록되었으며, 解說, 年譜, 評傳 등을 실고 있어, 명실공히 본격적인 研究書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는 처음 시도된 詩集으로서의 공로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永郎의 아홉번 째 詩集『모란이 피기까지는』³¹⁾이 1981년 8월 文學世界社版으로 出刊되었다. 同詩集은 총 86편의 詩作品을 수록함으로써, 이제까지 刊行된 詩集 중에서 最多數의 作品을 수록한 詩集이란 의미를 지닌다. 뿐만아니라 同詩集에는 永郎의 譯詩, 散文 등이 실려졌고, 評傳, 解說, 作家年譜, 作品年譜 그리고 永郎研究資料集까지 수록되어 있다 특히 最近年版임에도 불구하고 同詩集은 初期本系列의 原典의 表記體의 復元作業을 시도한 詩集이란 점에서 그 重要性이 지적된다.

III. 版本別 特徵

永郎詩集의 概觀을 통해 永郎詩集들을 다음 세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보았다.

- ① 初期本系列 ——
 - 初版本—
 - 永郎詩集 詩文學社版 1935. 11. 53편수록.
 - 永郎詩選 中央文化社版 1949. 10. 60편수록.
 - 再版本— 永郎詩選 正音社版 1956. 60편수록.

⑫ 琴湖江 54년 金南石의 「詩精神論」 7월.

※ ⑬ ‘발짓’은 ‘낫의 소란소리’(40년 女姓 6월호에 수록)와同一한 작품
인데 제목이 바뀜.

⑭ ‘行軍’은 ① ‘가야금’의 改作임. ‘行軍’과 ‘가야금’을同一한 作品으
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따로 論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知識產業社版에서는 ‘가야금’은 수록했으나 ‘行軍’은 수록안했음.) 文
學世界社版에서는 ‘가야금’, ‘行軍’을 별개의 작품으로 모두 수록했음.

³¹⁾ 註 6) 참조.

② 中期本系列—	—初版本—	—韓國詩人全集⑤, 新丘文化社版 1956.4. 70면 수록
	—永郎詩集 博英社版, 1959.11. 70면 수록
	—永郎·龍兒시선, 世運文化社版 1970.8. 71면 수록
	—모란이 되기까지는, 三中堂文庫版 1975. 71면 수록
③ 近年本系列—	—金永郎·朴龍喆外(韓國現代詩文學大系 7), 知識產業社版 1981.6. 79면 수록	
	—모란이 되기까지는(金永郎全集·評傳), 文學世界社版 1981.8. 86면 수록

初期本系列은 詩文學社版『詩集』과 中央文化社版『詩選』이다. 두 版本을 基底로하여 中期本系列의 世運文化社版과 近年本系列의 知識產業社版 및 文學世界社版을 對比 그 特징들을 고찰코자 한다.

(1) 作品題目의 問題

『詩集』과 『詩選』은 詩人 生前에 刊行된 것임에도 두 시집 간의 作品의 제목문제, 表記體系 等 論議點이 내재돼 있다.

첫째, 詩作品의 題目에 대한 문제이다. 『詩集』에 수록된 53편의 작품에는 題目이 없고 一連番號만이 작품마다 붙여져 있다. 『詩選』에 수록된 작품 60편에는 『詩集』과는 다르게 一連番號를 사용하였고 四行小曲 28편 외에, 詩作品 32편에는 作品題目을 별도로 '차례'를 만들어 詩集後尾에 붙여 놓았다. 때문에 두 詩集의 作品番號間에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작품번호만으로는 어느 작품을 뜻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詩集』·『詩選』의 作品番號	『詩集』의 作品의 1行	『詩選』의 作品의 1行
1	내마음의 어딘듯 한편에	내가슴 속에 가늘한 내음
11	님들시고 가는길의 애끈한 마음이어	내마음을 아실이
51	황홀한 달빛	바람에 나붓기는 깔님

위의 圖表에서 두 詩集의 同一한 番號로 되어있는 作品題目이 각각 다른 作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이들 중 어느 하나를 原本으

로 確定하는데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詩選』에 수록된 60편의 作品 중 43편은 『詩集』의 것을 再收錄한 것인데同一한 作品이 詩集에 따라 相異한 作品番號가 붙여져 있다면, 작품제목으로 사용한 一連의 番號만으로는 어느 작품을 지적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詩集』과 『詩選』에 수록된 作品들의 대부분은 《詩文學》誌(1, 2, 3號)와 《文學》誌(1, 3號)에 발표했던 것들이며, 그외에 몇몇 誌上³²⁾에 發表했던 것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誌上에 發表했다. 당시의 작품의 題目과 『詩選』後尾에 따로 붙여놓은 題目이 대부분 變造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原作 개재 당시의 作品題目과 『詩選』에서 붙여놓은 作品題目 간에 나타나는 많은 等差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原作掲載當時의 作品題目과 『詩選』에 실린 題目的對比〉

原作이 개재된 잡지명	原作개재 당시의 작품제목	작품이 개재된 詩集名·雜誌名	『郎詩選』에 개재된 작품제목
詩文學 1호	동백님에 빛나는 마음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永郎詩選	끌없는 강풀이 흐르네 오—매 단풍 들것네
"	원망	"	한박눈
"	내마음 고요히 고흔봄 길우에	"	돌담에 소식이는 햇발
文學 2호	하날가스 다온데	"	내옛날 온풀이
女性 4권 4호	佛地 菴 抒情	"	佛地菴
女性 4권 4호	빛갈환히	"	달마지
女性 5권 6호	호젓한 노래	"	내 훗진 노래
新天地 3권 9호	놓인마음	"	땅검이
朝光 5권 1호	※ 가야금	民族文化 1권 1호	※ 行軍

中期本系列의 集에서는 作品의 題目이 番號대신 정식으로 作品序頭

32) 《詩文學》1, 2, 3號 《民聲》5권 8호.

《文學》1, 3號 《朝光》5권 1호.

《女性》4권 4호, 5권 6호 《民族文化》1권 1호.

《新天地》3권 9호.

에 붙여져 있으며 ‘차례’만은 詩集 後尾에 별도로 붙여놓고 있다. 四行小曲 29편에는 中期本에서 처음으로 작품제목을 붙여놓은 것인데,³³⁾ 中期本系列 間에도 同一작품에다가 相異한 제목을 붙여놓고 있어 혼란이 내재되어 있다.

近年本系列인 知識產業社版엔 79편의 작품이 수록됐다.³⁴⁾ 그 가운데 27편의 四行小曲에는 제목대신 一連番號를, 나머지 52편의 詩에는 作品序頭에는 一連番號, 作品後尾에는 題目을 붙여놓았다. 그런데 同詩集을 3部로 평성하고 각부마다 독립적으로 一連番號를 作品에 사용하여 詩集內에서만도 同一한 作品番號가 셋씩이나 있는 결과가 되어 作品區別에 혼동이 있다. 또 하나의 近年本系列인 文學世界社版은 총 86편의 작품을 수록했는데 29편의 四行小曲에는 별도의 一連番號를 제목으로 사용하였고, 57편의 詩에는 작품의 序頭에 題目을 붙여 수록하였다.

이상에서 다섯 가지 版本들 간에 作品의 題目에 나타난 問題點들을 고찰하였다. 原典의 題目이 詩集에서는 전혀 使用되지 않았고 『詩選』에서 일부 變造하여 使用하였다. 中期本에선 題目的 통일성이 없었고(一連番號, 作品題目的 사용) 近年本에서도 等差가 있음을 주지하였다. 同一한 作品의 제목이 5가지 版本에서 相異하게 나타남을 다음에 對比하여 보았다.

둘째, 系列別 版本의 體裁 및 수록된 作品數에 대한 論議이다. 初期本의 『詩集』에 53편, 『詩選』에는 60편의 작품이 각각 수록됐다. 그런데

33) 中期本 世運文化社版은 作品 앞에 제목을 붙였고 四行小曲 29首에 까지도 작품 앞에 제목을 붙였음.

〔34〕 김 현, 『金永郎·朴龍喆 外』 知識產業社, 1981. 6.

‘찬란한 슬픔’(56편=四行詩 27편, 詩 29편)
 ‘忘却’ (6편) } 79편
 ‘選外’ (17편)

同詩集에 수록된 作品序頭에는 일련번호를 ‘찬란한 슬픔’, ‘忘却’, ‘選外’의 三部마다 별도로 붙였고 作品後尾에는 제목을 붙였음. 단 ‘찬란한 슬픔’ 部의 끝에 四行詩部를 포함시켜 놓았으며 일련번호나 작품제목은 붙여놓지 않고 있다.

各詩集間의 同一性品에 대한 規範名對照表

(×표는 해당 작품 없음 표시)

永郎시집의 작품번호	永郎시선의 작품번호	永郎詩題의 작품제목	永郎·龜兒 시선의 작품제목	金永郎·朴龍喆 외의 작품제목	모란이 피기까지는 의 작품제목
1	15	풀없는 강물이 흐르네	풀없는 강물이	풀없는 강물이 흐르네	동백님에 빛나는 마음
2	14	돌담에 소색이는 헛발	돌담에 소색이는 헛발	돌담에 소색이는 헛발	내마음 고요히 고흔봄
5	18	오—며 단풍들것네	오—며 단풍들것네	오—며 단풍들것네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
7	×	내옛날 은꿈이	누물에 실려가면	노래	하늘갓 나온데
39	22	내옛날 은꿈이	내옛날 은꿈이	내옛날 은꿈이	아끼누어 혼자비노라
41	×	×	아끼누어 혼자	비는 마음	시내스물소리
44	×	×	바람따라 가지오고	물소리	降仙臺
48	×	×	降仙臺 돌바늘 풀에	달	사개틀 낙 古風의 뒷마루에
49	×	×	사개틀 낙 古風의 뒷마루에	빛깔 환희	달마지
				내꽃진 노래	호젓한 노래
				방검이	농인 마음
				한박눈	원방
				낮의 소란소리	발짓

『詩選』에 수록된 作品 중 43편은 『詩集』의 것을 再收錄한 것이다. 즉 『詩集』의 것 53편 중에서 10편만 삭제하고 나머지 43편을 選詩하여서 여기에 新作 17편³⁵⁾을 합하여 『詩選』에 총 60편의 작품을 실게 된 것이다. 『詩集』의 편성체제는 『詩集』의 53편 全作品을 제목 없이 一連番號로 단조롭게 수록하고 있다.³⁶⁾ 또 『詩選』은 편찬자인 徐廷柱에 의해서 全作品 60편을 ‘찬란한 슬픔’, ‘四行詩’, ‘忘却’ 등 3部로 나누어서 수록하였다. ‘차례’를 詩集 後尾에 별도로 붙여 놓았는데 ‘Ⅱ, 四行詩’部를 제외한 ‘I, 찬란한 슬픔’部와 ‘Ⅲ, 忘却’部에 실려 있는 詩들에는 작품의 제목들을 붙여 놓았다. 徐廷柱는 同詩集의 跋詞에서 편성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³⁷⁾

……끝으로 이 詩選을 三部로 나눈 것은 年代順에 의한 것이 아니라 詩型 또는 內在律의 類別로 가른 것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讀者들을 위하여 오히려 便利하지 않을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中期本系列은 『詩集』과 『詩選』을 합쳐서 刊行한 것으로 총 70여편의 作品이 수록됐다. 新丘文化社版과 博英社版은 70편의 作品을³⁸⁾, 世運文

35) 註 3) 참조.

36) 金永郎, 『永郎詩集』詩文學社, 1935년 刊行. 註 2) 참조.

37) 註 3) 참조.

『詩選』의 편성체제

‘차례’

I. 찬란한 슬픔 詩 29편→‘차례’에는 제목, 작품에는 번호를 붙임.

II. 四行小曲 25편→‘차례’에도, 작품에도 번호를 사용.

III. 忘却 詩 6편→‘차례’에는 제목, 작품에는 번호를 붙임.

38) 『韓國詩人全集』卷 5, (金永郎, 朴龍喆, 辛夕汀) 新丘文化社, 1959.4. 70 편의 作品이 수록됨.

『詩集』에 수록했던 53편의 作品중에서 『詩選』편찬 때 選詩된 43편 외에 누락했던 10편을 다 수록했음.

『詩選』편찬 때 누락했던 詩作品으로서 『詩集』에 수록돼 있는 10편의 作品이 『韓國詩人全集卷 5』에 再收錄된 것임.

① 7. <눈물에 실려가면>

② 26. <사랑은 가프기 푸른하늘>

③ 35. <빠른 철로에 조는 손님아>

化社版과 三中堂文庫版에는 총 71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이에 추가 수록된 1편의 四行小曲은 <못 오실 님>³⁹⁾인데 《詩文學》2號에 게재됐던 작품이면서 『詩集』刊行 당시 누락되었던 것이다. 中期本系列의 편성체 제는 中央文化社版과 同一하게 3부로 되었다. 世運文化社版은 作品의 序頭마다 작품의 제목을 붙였으며 一連番號는 使用하지 않고 있다. ‘차례’는 詩集 後尾에 붙여놓았으며 徐廷柱의 ‘跋’이 실려 있다.⁴⁰⁾

近年本系列 知識產業社版에는 79편의 작품을, 文學世界社版에는 86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近年本系列에 와서 이처럼 많은 작품을 수록하게 된 것은 《文學思想》社에서 추진한 國文學資料發掘作業의 公로로 지적된다.⁴¹⁾ 그런데 새로 발굴된 작품중 ‘改作된 것’⁴²⁾과 작품제목이

④ 36. <생각하면 봇그려운 일이여라>

⑤ 39. <하날갓 다른데>

⑥ 41. <아파 누어 혼자 비노라>

⑦ 44. <바람따라 가지오고>

⑧ 48. <降仙臺 돌바늘 끝에>

⑨ 49. <사개를난 古風의 뒷마루에>

⑩ 51. <사랑은 기프기 푸른 하늘>

※ 제목 앞의 수자는 『詩集』에 수록된 작품번호임. ()안의 수자는 四行詩임.

39) <못오실 님>

못오실 님이 그리울기로

흐터진 꽃님이 슬프겟든가

빈손쥐고 오신님이 거쳐나 가시련만

흘러가는 눈물이면 님의마음 저지련만

40) 『永郎·龍兒 시선』의 跋

…… 이 詩選에서 永郎先生의 詩篇들은 그 全部를 수록托록 했다. 해방 전에 나온 『永郎詩集』과 1949년 내가 편집한 『永郎詩選』 두 권의 詩篇을 밖에 누락되었던 것까지를 다 넣도록 했다……. —徐廷柱—

41) 註 30) 참조.

42) <行軍> (49년 《민족문화》 1권 1호 10월호)은 <가야금> (39년 《朝光》 5권 1호 1월호)의 改作임.

가 야 금	行 軍
北으로/北으로/울고간다 기러기//	北으로/北으로/울고간다 기러기//
南方의/대숲밑/뉘휘여 날ヶ느노//	南方 대숲 밑울/뉘후여 날ヶ느노//
앞서고 뒤섰다/어지럴리 없으나//	걸르르 걸르/차운 어순/달밤//

改名된 것⁴³⁾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論議가 아직 남아 있어, 永郎의 詩作品의 총 편수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近年本系列의 편성체제는 많은 변모를 보이고 있다. 知識產業社版은 3部로 편성되었으되 中央文化社版과는 다르게 되었다. 즉 그 내용을 보면 3部의 形式을 취했으되 '찬란한 슬픔', '忘却' 그리고 '選外'로 區分했을 뿐 I, II, III의 區分表識을 단계적으로 하지 않았다. 또 '四行詩' 부를 별도로 두지 않고 '選外'의 部에 포함시켜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 詩集의 '차례'를 詩集 첫머리에 처음으로 배려한 同詩集은 '찬란한 슬픔' 部에 詩 29편과 四行詩 27편, 즉 합계 56편을, '忘却'의 部에는 詩 6편을, 그리고 '選外'의 部에는 詩 17편을, 총 합계 79편을 수록하였다. '차례'에서는 작품 제목만을 使用하고 一連番號는 각 部마다 별도로 독립된 번호로 作品序頭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作品題目은 作品 끝에 붙여놓고 있다. 또한 永郎作品의 해설과 年譜도 수록하고 있어 永郎文學研究書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⁴⁴⁾

한편 文學世界社版은 그 편성체제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즉 '永郎詩集', '永郎散文集', '金永郎評傳' 그리고 '金永郎研究資料集' 등으로 詩集이 편성돼 있어 '金永郎全集'으로서의 내용을 갖추고 本格的인 永郎研究書로서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 특히 '永郎詩集'의 部분은 이를 다시 年代順으로 4단계로 나누어 作品을 수록하였다.⁴⁵⁾ 同詩集의 편성체제의

간열픈 실오백이 / 베목숨이 조배로 아 //	하늘 스미지 못해 / 차량한 行軍 // 걸 로! 간열뜨개 멀다/하늘은 목배인 소리도 낸다 //
-----------------------------	--

43) <발것> (49년 《民聲》 5권 8호 8월)은 <낮의 소란소리> (40년 《女性》 6월호)의 改名임.

44) 김 현, 『金永郎·朴龍喆 外』 知識產業社, 1981.6.
<일러 두기>

①……《永郎詩集》과 《永郎詩選》의 편집체제에 따라 詩의 末尾에 제목을 붙였으며……

② 표기법은 원문에 충실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詩感이나 리듬을 손상치 않는 범위내에서 국소 부분만을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손질하였다.

45) 金澤東, 『모란이 피기까지는』 文學世界社, 1981.8.

특징은 年代順으로 作品을 수록했고 作品의 序頭에 제목을 붙였으며 四行詩만은 永郎詩人의 生前時 刊行했던 『詩選』의 체제대로 ①에서 ㉙까지의 一連番號를 붙여 제목 대신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다.

다음은 異어쓰기, 緡字表記 等 表記體系가 版本에 따라 크게 變化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考察이 要求되므로 별도의 章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2) 表記體系의 變化

永郎詩集의 表記體系는 版本에 따라 差異가 난다. 版本間의 表記體系의 變化는 時代轉移에 따르는 國語正書法의 變化와 詩集 편찬자의 表記體系에 대한 관심 부족에, 그리고 印刷術 등의 外的 要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永郎은 특수한 個人語法을 갖은 詩人이다. 그러므로 그의 詩集들에서의 表記體系의 變化는 자칫 詩 자체의 美感을 變質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의 詩集이 版本間に 異어쓰기 철자법 등의 表記體系가 변모되고 있음을 고찰하는 일은 重要한 作業인 것이다.

永郎詩는 一行 三音步 내지 四音步格 異어쓰기로 되어 있다. 그의 詩의 韻律은 民謡調의 그것과는 또 다른 形態로 고찰된다. 즉 岸緒, 素月 등의 詩의 韵律은 民謡詩를 지향하는 定型詩에 가까운 三·四調의 異어쓰기로 되어 있다.⁴⁶⁾ 그리고 萬海는 줄글 形態의 散文詩的 形式을 주로하여 氣息群(Breath group)의 詞의에 따라 적당한 異어쓰기를 하였다.⁴⁷⁾ 그러나, 新詩, 定型詩 그리고 民謡調의 詩들에서, 그 形式的인 탈피를 시도하였다고 보여지는 永郎의 詩에서는 '한 개의 詩에 한 개의 型을 받

〈편집 체제〉

제 1부 1930~35 : 시 25편, 四行小曲 29편	} 제 4부 譯詩 3편, 86편.
제 2부 1938~40 : 시 13편	
제 3부 1946~50 : 시 19편	

46) 吳世榮, 韓國浪漫主義詩研究 一志社, 1980, pp.65~95.

47) 金載弘, 萬海韓龍雲研究 一志社, 1982, p.45.

견’하는 자각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⁴⁸⁾ 1920년대의 詩가 民謡的이거나 또는 散文의이거나 하다면 ‘하나의 藝術作品이 그 자체로서 고유한 법칙을 가지고 創造的으로 만들어지는 것’⁴⁹⁾이란 定義를 詩에 부합시킨 것이 『詩文學』에 이르러서부터 입을 永郎詩의 韻律形式에서 볼 수 있다. 즉 永郎詩의 띄어쓰기 형태가 民謡調의 二音步格에서 탈피하여 三音步내지 四音步格 띄어쓰기를 하였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詩文學史上 重要한 意味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⁵⁰⁾

다음에 永郎詩의 韵律形態를 작품을 예로 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① 三音步格

산 . 풀 . 을 / 노 . 리 . 터 . 로 / 커 . 난 . 시 . 악 . 시 //
 가 . 씀 . 속 . 은 / 구 . 술 . 가 . 치 / 맑 . 으 .련 . 마 . 는 //
 바 . 라 . 뷔 . 는 / 면 . 곳 . 이 / 그 . 리 . 움 . 인 . 지 //
 동 . 우 . 인 . 채 / 山 . 길 . 에 / 섯 . 기 . 로 . 하 . 비 //

『詩集』「18」全文(傍點筆者)

② 四音步格

그 . 색 . 시 / 서 . 럽 . 다 / 그 . 얼 . 풀 / 그 . 동 . 차 . 가 //
 가 . 울 . 하 . 들 . 가 . 에 / 도 . 는 / 바 . 랍 . 쫓 . 진 / 구 . 틈 . 조 . 차 //
 웨 . 수 . 하 . 고 / 서 . 느 . 라 . 워 / 어 . 대 .로 / 떠 . 갓 . 스 . 래 //
 그 . 색 . 시 / 서 . 럽 . 다 / 옛 . 날 . 의 / 옛 . 날 . 의 //

『詩集』「19」全文(傍點筆者)

48) 金容稷,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1974, p.214.

49) Herbert Reed, Collected Essay in literary Criticism(London 1955)p.19.

50) 金大幸, 韓國詩의 傳統研究, 開文社, 1984, pp.15~16.……民謡에 대한 기왕의 연구를 종합한다면, 韵節의 수를 해아리는 韵數律의 方法이 있는가하면 그같은 方法을 극복·지양하고 音步律이라는 새로운 관점은 수립한 것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민요뿐만 아니라 韓國詩의 전반적인 律格체계를 音步律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현저하다.…… 音步律이란 대체로 3, 4音節을 기준으로하는 音步를 단위로 하여 그러한 音步 몇개가 한 行을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 二音步格에서 五音步格까지의 네 종류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韵數律의 전면 부정이라기 보다는 音節數에 기초를 두되 적당한 수의 音節들이 이루는 그 조수의 배합 관계에 의해 律格의 단위를 설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音步律이란 韵數律과의 상보관계 위에서 세워지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例詩 ①은 一行 三音步格, ②는 一行 四音步格 되어쓰기로 되어 있다
傍點이 찍힌 한 단위의 되어쓰기는 둘 내지 세개의 낱말들이 모여서 成立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커난시악시→커난 시악시>, <동우인채→
동우 인 채>, <가을하늘가에→가을 하늘 가에>, <구름초자→구름 조자>
등인데 이는 永郎 특유의 韻律形態를 위한 表記體系로 지적된다.

다음에 永郎의同一한作品의 되어쓰기 체제가 5가지 版本에서 어떻게
변모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눈물속 / 빛나는 보람과 / 우슴속 / 어둔슬픔은
오직 / 가을하늘에 / 떠도는 구름
다만 / 후것하고 / 줄대업는 마음만 / 예나 이제나
외른밤 / 바람솟길 / 찬별율 보았습니다.

『詩集』「28」全文

② 눈물속 / 빛나는 보람과 / 웃음속 / 어둔슬픔은
오직 / 가을 하늘에 / 떠도는 구름
다만 / 후겼하고 / 줄대없는 마음만 / 예나이제나
외른밤 / 바람솟길 / 찬별율 보았습니다.

『詩選』「45」全文

③ 눈물 속 / 빛나는 보람과 / 웃음을 속 / 어둔 슬픔은
오직 / 가을 하늘에 / 떠도는 / 구름
다만 / 호겼하고 / 줄대없는 마음만 / 예나 이제나
외른밤 / 바람솟길 / 찬별율 / 보았습니다.

『永郎·龍兒시선』「눈물속 빛나는 보람」全文

④ 눈물 속 / 빛나는 보람과 / 웃음을 속 / 어둔 슬픔은
오직 / 가을 하늘에 / 떠도는 구름
다만 / 후것하고 / 줄대 없는 마음만 / 예나 이제나
외른밤 / 바람솟길 / 찬별율 / 보았습니다.

『金永郎·朴龍喆 外』「눈물속 빛나는 보람과」全文

⑤ 눈물속 / 빛나는 보람과 / 우슴속 / 어둔 슬픔은

오직／가을하늘에／떠도는／구름
 다만／후졌하고／출대업는 마음만／예나 이제나
 외론밤／바람늦긴／찬별울／보았습니다.

『보란이 피기까지는』「四行小曲 14」全文(以上 傍點 筆者)

위에서 5가지 版本에 따라 띄어쓰기가 변모된 바를 살펴 보았다. 例詩 ①에서 1行 4音步格 띄어쓰기로 表記했던 것이 ②에서 部分的으로 音步格이 지켜지지 않았으며(○表 部分임), ③에서는 상당한 部分에서 音步格 띄어쓰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表 部分임). 그리고 ④에서는 거의 現代正書法에 맞춰 띄어쓰기를 하였으므로 音步格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⑤에 와서는 다시 ①의 音步格 띄어쓰기 表記體系로 復元되었음을 發見할 수 있다.⁵¹⁾ 즉 中期本에서는 거의 現代正書法에 맞춘 띄어쓰기로 表記했는데, 이것은 永郎詩에 있어서 音步格 띄어쓰기의 重要함을 배려하지 못한 表記로 지적된다. 그러나 近年本에 와서, 原本이나 原典의 완전한 復元을 시도한 音步格 띄어쓰기의 表記體系로 刊行되어졌음을 다행한 일이다.⁵²⁾ 金澤東은 그의 編著 文學世界社版 『보란이 피기까지는』에서 다-음과 같이 <일러두기> 래을 붙여놓았다.⁵³⁾

51) 用例(傍點된 것은 音步律格에 맞추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어휘이다.)

- ① 다만 후겼하고 출대업는 마음만 예나이제나
 - ② 다만 후겼하고 출대없는 마음만 예나이제나
 - ③ 다만 호겼하고 출대없는 마음만 예나 이제나
 - ④ 다만 후젓하고 출 데 없는 마음만 예나 이제나
 - ⑤ 다만 후젓하고 출대업는 마음만 예나이제나
- * ①과 ⑤는 띄어쓰기, 철자법이 일치함.

52) 永郎詩의 音步格 띄어쓰기는 民謡調의 二音步格(혹은 2倍 數格)을 지향하고 새 형식인 三音步 내지 四音步格 띄어쓰기를 시도한 것에 특징을 둔다. 즉一行을 三音步 내지 四音步가 되도록 체언, 조사, 관형어, 접속어 등을 편의에 따라 임의의 한 단위로 묶어서 띄어쓰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지켜서 表記하여야 永郎詩에 있어서의 韻律美를 폐손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일러두기>

……『永郎詩集』초판본까지의 詩篇을 제 1부로하여 그 내용이나 철자법은 초판본에 준했다. ……中略……제 2~3기의 구분은 8·15해방을 경계선으로 하였고 모두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당시 原詩의 내용과 철자법을 따랐다. ……
 (傍點筆者)

즉 原典의 復元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版本間에 변모된 緜字法表記를 살펴보자 한다. 初期本系列 『詩集』에서의 緜字表記는 소리나는대로 표기하였다. 즉 ‘차즈랴(찻으랴)／잘안준(잘앉은)／뫼아페(뫼앞에)／얄게(얇게)／가터(같아)’ 등 連綴式表記를 사용하고 있다.⁵³⁾

① 쓸쓸한 뫼아페 후젓이 안즈면
마음은 잘안준 양금줄 가치

『詩集』「8」에서

② 구비진 돌담을 도라서 도라서

『詩集』「9」에서

어이면 한숨만 도라다 주오

『詩集』「22」에서 (傍點筆者)

①에서, 傍點을 찍은 ‘뫼아페／안즈면／잘안준／가치’ 등 連綴表記는 이미 『詩選』에서 ‘뫼앞에／앉으면／잘앉은／같이’ 등으로 表記되었으며 ②에서, ‘구비진／도라서／모라다’ 등의 연철식 표기가 『永郎·龍兒 시선』, 『金永郎·朴龍喆 外』에서 ‘굽어진／돌아서／몰아다’ 등으로 表記되었다. 이러한 連綴式 表記體系는 永郎詩語에 있어서 특이한 方法으로 詩語의 音感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永郎詩에 나타난 철자표기를 살펴보면 初期本인 『詩集』에서는 ‘ㅋ, ㅎ’, 外의 12個 單子音모두와 ‘ㅌ,

53) 金澤東, 『모란이 피기까지는』 文學世界社, 1981.8. <일러 두기> 참조.

54) 用例.

우습/도처/부러오는/매준/기쁘기/이출나/드르라.

四, 𩊻', 등 3개의 復子音을 終聲에 使用하였고 'ㅆ'의 終聲使用은 눈에 띄지 않는다.⁵⁵⁾ 그리고 당시의 혼란한 文法體系의 이유에서 混綴, 誤綴된 綴字의 表記도 과도기적인 產物로서 배제될 수 없었던 것 같다.⁵⁶⁾ 그런데 『詩選』에서부터는 『詩集』에서 사용하고 있는 終聲以外에 'ㅎ, ㅆ, ㄴㅎ, ㄴㅈ, ㄱㅅ, ㅂㅅ, ㄹㅎ' 등을 終聲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5) 『詩集』에서 사용된 '받침'의 用例.

ㄱ→딱. 저녁때.	ㅊ→빛 갈이, 아줌말빛에
ㄱ→한박눈, 외로운.	ㅋ→X.
ㄷ→믿지는.	ㅌ→꼼발, 치끌하끌
ㄹ→쓸쓸한, 눈물.	ㅍ→대술.
ㅁ→님, 마음.	ㅎ→X.
ㅂ→서럽다. 가부엽게.	리→향맑은.
ㅅ→못잡지, 못하야.	롸→삶은.
ㅇ→행여나, 아통지는	ঔ→애답다.
스→맺는	

※ 이상 단자음 12개, 복자음 3개가 받침으로 사용되었고 쌍자음의 받침 사용은 없음.

56) 誤綴·混綴의 用例. ※ [] 안의 수자는 『詩集』의 작품 번호임.

안으나(않으나)→서럽지는 안으나[26],
업다고(없다고)→향내업다고[32], 헤일수업지단[33]. 버릴수업나[37]
꾼어(뚫어)→그피스줄 빡끈어[37]
할니라고(하리라고)→큰 일을 할니라고[36]
안는(않는)→뵈지도 안는 입김의[25]
문허진(무너진)→문허진 성터에[17]
팔히한(파리한)→팔히한마음[52]
기혀(기여)→기혀 차즈려[25]

連綴의 用例

단두리(단둘이)→끼꼬리 단두리 단두리로다[4]
자지어서(찾아어서)→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5]
차차가오리(찾아가오리)→바람이 부는대로 차차가오리[6]
한거름(한걸음)→눈물에 실려가면 한거름 한거름[7]
뫼아께(뫼앞에)→쓸쓸한 뫓아께[8]
거려가는(걸어가는)→말업시 거려가는[14]
부러주신(불어주신)→누구라 부러주신[16]
보기실훈(보기싫은)→보기실훈 아픔[27]

冲动 ; 면 — 지난날의 놓친마음	[20]
쓰 ; 내눈은 감기였는데 감기였는데	[2]
끄 ; 임으 사라진 千里밖의 山울림	[20]
긱 ; 고되인 냉을 짓밟누나	[19]
꽈 ; 그밥을 훌리 않으면	[8]
꽈 ; 벽을 향해 숨쉬지 않았느뇨	[19]
꽈 ; 내가 잊은 마음의 그림자	[1]
꽈 ; 아슬한 푸른하늘 뜻없이 바래다가	[2]

(筆者傍點, []안의 수자는 작품번호임)

한편 硬音表記는, 1930년 『詩文學』誌에 作品을 發表할 당시에 使用했던 古語合用並書인 ‘음바탕, 저녁째’ 등이 『詩集』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⁵⁷⁾, ‘긱, 꽈, 쭈, 쓰, 꽈’, 등으로 硬音表記하고 있다.⁵⁸⁾ 또한 사이시웃 ‘ㅅ’을 硬音부호 내지 관형격조사로 使用하였는데 그 用例는 다음과 같다.

〈피ㅅ줄／풀ㅅ작／밤ㅅ사람／산ㅅ꼴／잠ㅅ결／바다ㅅ가／손ㅅ짓／술ㅅ잔／
해ㅅ발／노래ㅅ군／내 혼자ㅅ마음／시내ㅅ물소리〉

1926년 萬海의 『님의 沈默』에서 8개의 單子음만을 終聲에 使用했고, 古語合用並書의 硬音表記를 하였다.⁵⁹⁾ 이에 비해서 1935년 『永郎詩集』에서는 12個의 單子音과 3個의 復子音등 모두 15個의 終聲을 사용하였고 硬音表記에서도 古語合用並書가 아닌 쌍자음을 사용한 점에서 時代

57) 1935년 간행된 『永郎詩集』에서는 硬音表記로 쇠, 츄, 쭈, 쓰 등의 古語合用並書가 사용되지 않았고 쌍자음이나 사이시웃등이 경음표기에 사용됨.

58) 쌍자음 긱, 꽈, 쭈, 쓰의 硬音표기 用例. [] 안의 수자는 『詩集』의 작품 번호임.

긱→바람에 나붓기는 깔닙[20]

꽈→서론소리 한千마대셋스면[30]

꽈→해와가치 멋다지는[31]

꽈→빨건 맨발로는[21]

꽈→오, 비가 이리 쭈쭈쭈 나리는 날은[30]

눈물도첫 금나누나[30]

59) 金載弘, 韓龍雲文學研究 一志社, 1982. p.45.

의 變移에 따르는 國語正書法의 变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49년의 『永郎詩選』에서 原典의 表記體系가 지켜지지 않게 된 점은 時代의 變移에 따른 國語正書法에 맞춘 자연스런 철자·띄어쓰기의 变모만으로 간파 될 수는 없다. 永郎 특유의 詩語가 갖고 있는 순수한 美感대로인 原典의 表記體系에 대하여는 띠어쓰기·綴字表記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詩文學社版의 表記가 그 이후의 版本에서 國語 正書法에 맞춰서 表記되었다면, 그것은 永郎詩의 詩語의 語感이나 韻律形式을 무시한 作業이라 할 수 있다. 連綴式 表記를 함으로써 ‘꾀꼬리 단두리 단두리로다’(『詩集』[4]에서)로 된 詩行을, 만일 ‘꾀꼬리 단 둘이 단 둘이로다’라고 現代正書法에 맞춰 表記했을 때 이에서 同質의 感動을 받기는 어렵다. 詩文學社版 이후의 版本間의 綴字表記의 变모를 對比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記體系 變化要因	原典의 表記 詩文學社版本	變化된 표기	變化된 版本名
正書法의 變化에 따라서	어린듯	어딘듯	中央文化社版
	이 데 거장	이 정정거장	中央文化社版
	하늘을	하늘을	中央文化社版
	붓잡지	붙잡지	中央文化社版
	끗업는	끌없는	中央文化社版
	술향기	술향기	中央文化社版
	십다	십다	中央文化社版
	정열	정열	中央文化社版
	할나라고	할리라고	中央文化社版
	가치	같이	世運文化社版
	고힌눈물	고인눈물	"
	니—는	이—는	"
	꾀아래	꾀아래	"
	아침 날 빛	아침 날 빛	"
	눈썹	눈썹	"
	잇는 곳	잇는 곳	"
	우습	웃음	"

表記體系 變化要因	原典의 表記 詩文學社版本	變化된 表記	變化된 版本名
	조히등불 히부양 가란젓다 떠나룬다 슬니는 차즈랴 머느니 쭈무리 쭈무리	종이등불 회부양 갈았었다 떠날룬다 슬리는 찾으려 먼산 주물러 주물러	世運文化社版 " 知識產業社版 世運文化社版 中央文化社版 " 世運文化社版 " 世運文化社版 知識產業出版社
外國語 · 外來語의 표기체 變化에 따라서	빈 포케트 애매랄드 풀 · 베를레 —느 풀 · 베를레 —느 풀 · 베를레 —느	빈 포케트 애매랄드 풀 · 베르레느 풀 · 베를레 —느 풀 · 베르베르	知識產業社版 中央文化社版 " 世運文化社版 知識產業社版
誤記 · 誤植 等 인쇄상의 부주의 때문에	질기운암 복숭아꽃 구비진 너론들 조울걸 홋근한 서어한 봐란듯 한숨관 보았습니다 매치고 매치고 캄캄한 구비진 구르릉 고총 재앙스럽소 사랑은 기쁘기 맹세는 가볍기 고개숙이고	질기운암 봉숭아꽃 구버진 어론들 좋을걸 홋긋한 서언한 보아라 한숨울 보았습니다 맺히고 맺이고 캉캉한 굽어진 프르릉 고총 재앙스럽오 사랑은 기쁘기 맹서는 가볍기 고개숙이고	中央文化社版 知識產業社版 世運文化社版 " 中央 · 世運 · 知識 世運文化社版 " 知識產業社版 中央文化社版 知識產業社版 知識產業社版 文學世界社版 中央文化社版 世運文化社版 " 中央文化社版

表記體系 變化要因	原典의 表記 詩文學社版本	變化된 表記	變化된 版本名
	떠오는	떠오르는	知識產業社版
	찌금	찢금	世運文化社版
	제벗어	제벗이(中)	
	실타리	싫다리(中)	
	매치고	매지고	中央文化社版
	마음씨냥(中)	마음씨 양	文學世界社版
	쭈물러버리네(中)	쭈물러 버리네	世運文化社版
	쭈물러버리네(中)	쭈물러 버리네	知識產業社版
	출렁거린듸(中)	출렁거리내	文學世界社版
	제운밤	제운밤	知識產業社版
	이한밤아	이한밤이	知識產業社版
	흘린듯	흘린듯	知識產業社版
	눈썹에	눈썹에	世運文化社版
	외아래	외아래	中央文化社版
	나붓기면서	나붓끼면서	世運文化社版

※ (中)은 中央文化社版임.

다음의 圖表는 句行의 誤謬·變化 및 脫字等을 지적한 것이다.

詩文學社版	中央文化社版	世運文化社版	知識產業社版
「바람이 부는대로 차자 가오리」	·바람이 부는대로 차자 가오리·	「바람이 부는대로 찾아가오리」	「바람이 부는대로 찾아가오리」
풀·베를레—느 찾 는 날	풀·베르레느 찾는 날	풀·베를레—○○ ○	풀·베르베르 찾는 날
눈풀도 찢금 나누 나	눈풀도 찢금 했노 라	눈풀도 찌금 나누 나	눈풀도 젤금 했노 라
한 千마디 셋스면 시퍼라	한 千마디 외었으 면 싶어라	한 千마대 썼으면 싶어라	한 千마대 썼으면 싶어라
창랑에 잠방거리 는 섬들을 길려	창랑에 잠방거리 는 흰물새려나	창랑에 잠방거리 는 흰물새더나	창랑에 잠방거리 는 흰물새려나
마을을 휩쓸고 목 숨 아서간	마을○ 휩쓸고 목 숨 앗아간	마을○ 휩쓸고 목 숨 앗아간	마을○ 휩쓸고 목 숨 앗어간

이상의 고찰에서 永郎詩表記體系의 특징을 변모시켜 놓은 要因들을 살펴보았다. 正書法의 變化에 따른 것과, 固有語와 方言, 그리고 造語 등 永郎의 개인詩語의 使用에서 비롯되는 誤記, 誤植 그리고 印刷時의 부주의 등에 그 要因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永郎詩의 韻律形式은 一行 三音步 내지 四音步格 띠어쓰기로 되어 있으며 이는 詩文學史上重要な 의미를 갖는 것임을 인지하였다. 그러므로 永郎詩에 있어서의 띠어쓰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永郎詩의 띠어쓰기와 緜字表記가, 만일 現代文法에 맞도록 낱말을 띠어쓰기 하던지, 혹은 連綴式 緜字表記된 것을 現代正書法대로 緜字表記를 된다면, 永郎詩의 韵律과 詩語의 音感을 크게 해손시키는 바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永郎詩의 獨特한 鄉土性과 傳統의 목소리의 진출성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詩的 情緒를 깨뜨리는 결과도 되는 것이다.

詩文學社版의 『永郎詩集』이 刊行된 이후의 永郎詩集의 編찬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점에 대한 무관심과 부주의 속에서 詩集은 刊行하여왔다 고 본다. 그러므로 永郎詩集의 版本間의 表記體系의 等差는 마땅히 原典表記體系로 復元되어야 할 것이다.

IV. 獨特한 個人詩語

(1) 固有語와 方言의 使用

永郎의 詩語는 固有語와 方言의 使用, 새로운 造語의 다양한 驅使, 그리고 漢字語와 外來語의 積極한 쓰임새 面 등 獨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永郎의 詩는 固有語 方言의 使用으로 우리 言語가 지니고 있는 傳統의 情感과 鄉土性 짙은 오묘한 情緒를 표출하고 있다.

밤ㅅ사람 그립고야

말업시 거러가는 밤ㅅ사람 그립고야

보름님은 달그리매 마음아이 서어로아

오랜밤을 나도혼자 밤스사람 그립고야

『詩集』「14」全文(傍點筆者)

‘고야’ ‘달그리매’ ‘서어로아’ 등의 古語가 지니는 美를 향토적 정감으로 살리고 있다. ‘마음아이’의 ‘아이’는 ‘아니’의 ‘ㄴ’을 ‘ㅇ’으로 바꾸어 음상을 변이시키고 있다. ‘마음아이’는 ‘ㅇ’ 음의 協音의 효과를 통해서 方言과 같은 효과를 조성하고 있다.

固有語와 方言의 使用으로 향토적 친근감을 높이고 고유한 情感의 진출성을 불러일으키는 用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固有語의 사용을 보면 ‘사럿나라/드렁노라/날다려/우웁내다/도나니/기둘너리/가삼/하날/아조’ 등이 있고 方言의 사용을 보면 ‘출렁거린듸/내사/들것네/끌불은/찢금/어덕/자옥/동우/엽태/질기운/아배/너둔’ 등이 있다.⁶⁰⁾

素月이 自然親近에서 韓國固有의 원형적인 情緒發見에 성공했다면, 永郎은 固有語 내지 南道方言의 과감한 使用으로 鄉土性 짙은 民族의 傳統的인 情感을 표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造語 등의 使用으로 國語美의 發見을 시도한 詩人으로서 素月과 쌍벽을 이루는 存在로 판단된다.

「오—매 단풍들겠네」

장평에 물불은 감님 날려오아

누이는 놀란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겠네」

60) 固有語의 用例 ※ [] 안의 수자는 『詩集』의 작품번호.

마조 가고치위라[52]/아슬한 하날아래[3]/몰랏스료만, 너무로구려[6]/

가삼은 간곡히[12]

方言의 用例

어덕에 바로누어[3]/귀를종금이[6]/하루사리나래로다[52]/눈불도 찢금 나누나[30]

추석이 내일도례 기둘나리
바람이 차지어 서걱정이리
누이의 마음다 나를보아라
[오—매 단풍들것네]

『詩集』「5」全文(傍點筆者)

위의 詩는, 永郎이 ‘詩文學派의 純粹抒情詩運動’을 한글운동의 영향권 내에서 전개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永郎은 ‘오—매’ ‘골불온’ ‘들것네’ 등 鄉土色 짙은 方言과 ‘기둘나리’ ‘걱정이리’ 등 傳統의 固有語使用과 ‘날려모아’ ‘차지어서’ 등의 造語사용으로 詩語에 한글만을 사용하는 한글운동에 크게 공헌했다고 보여진다.

(2) 새로운 造語의 多樣한 驅使

永郎詩는 ‘아슨풀’, ‘조매로운’, ‘어슨달’, 그리고 ‘실타리’ 등의 새로운 造語의 驅使로 詩의 新鮮美를 갖게하고 독특한 抒情性을 유발, 유연한 詩語의 이음을 통한 詩的 韻律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造語의 方法에는 ① 有聲音活用型, ② 音의 添削, ③ 擬古體活用, ④ 意圖的 母音調和, ⑤ 復合語·派生語, ⑥ 補助語幹의 添加, ⑦ 擬聲語·擬態語의 使用 등이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造語의 驅使로써, 既成言語의 意味 속에 틀에 박힌 완고한 類型性을 벗어나 詩人自身의 創造的인 詩的 情緒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7가지 造語의 方法에 따른 永郎詩 속에 나타난 詩語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有聲音活用型은 詩語 자체에 ‘ㄴ, ㄹ, ㅁ, ㅇ’ 등의 有聲音과

有聲音終聲	名詞	冠形詞·副詞(形)
ㄴ 音 제 열	보란, 실비단, 구슬손	아슬한, 히부얀, 슬리는, 빤질한
ㄹ 音 제 열	장풀, 물결, 뿐, 샘풀	아실, 일결
ㅁ 音 제 열	마음, 가슴, 바람, 봄, 님, 꿈	그때버팀
ㅇ 音 제 열	장광, 단풍, 마당, 경	홍청
※모음 終聲의 제열	나, 누이, 뵈	애끈이, 후것이, 행여나, 흘히

母音이 들어 있는 것들을 選語하여 사용하므로써 詩的 韻律美를 나타내는 方法이다.

둘째, 音의 添削에 의한 造語法이다. 音의 첨가와 삭제를 하여 造語하므로써 詩의 韵律美를 나타내고 있다. 音의 삭제를 하므로써 造語된例를 보면 ‘갈안준／وا란듯／돌여／어이면／원통코／외론’ 등인데, 특히永郎은 音의 삭제를 통한 造語의 使用을 많이 하고 있다.⁶¹⁾ 音의 삭제로된 造語의 使用을 『詩集』의 詩行內에서例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의 수자는 작품번호임⟩

- | | |
|-------------------------|------|
| 〈외론밤 바란듯진 찬별을 보랏습니다〉 | [28] |
| 〈내일 또 새론 섬 새구슬 먹음교오리〉 | [31] |
| 〈눈만 감으면 떠오는 얼풀〉 | [33] |
| 〈어둑한 풀목풀목에 수십은 몇다 가란쳤다〉 | [38] |
| 〈청산아 와란듯 떠나가는 배〉 | [40] |
| 〈오! 그 수십든 보랏빛〉 | [42] |
| 〈물아 거기 좀 범훼스라 나는 그윽히〉 | [44] |
| 〈어덕에 누어 바다를 보면〉 | [33] |
| 〈업되어 눈물로 따우에 색이자〉 | [39] |

音의 添加로된 造語에는 母音첨가로 된 것과 活音調(Euphony)의 使用으로 된 것이 있다. 먼저 母音첨가에 의한 造語의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品	詞	예
名	詞	풀내음새, 마음아이, 너시는
動	詞	깨이여지고, 치어다보고, 날려오아,
冠	形(語)	어리우는, 소색이는, 하이얀,
副	詞(語)	고울지, 가부엽계, 자지어서, 구울려

61) 音의 삭제의 用例

뇌들(너희들)/뉘침(뉘우침)/씌며(쏘이며)/뵈는(보이는) / 실타리(싫다하리)/회미론(회미로운)/붓끄럼(부끄러움)/초조론(초조로운)/향미론(향미로운)/무에던지(무엇이던지)/갈안준(갈아앉은)/어이면(어이하면)/외론(외로운)

子音첨가는 活音調인 ‘ㄴ, ㄹ, ㅁ, ㅇ’ 등의 活用을 높이고 탁음을 출입으로써 詩語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마르시오’, ‘꿈이련가’, ‘나래’, ‘발자욱’, ‘바다려나’, ‘산모동이’ ‘너무로구려’ 등의 詩語들은 그들이 속한 行에서 의도된대로 적절한 韻步의 구성성분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行속에서 韵律에 영향을 주어 詩의 音樂性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⁶²⁾

셋째, 擬古體의 活用이다. 옛스러운 느낌의 詩語들을 使用하여 傳統的인 情緒를 詩속에 살리는데 성공하고 있다. 즉 ‘차자가오리’, ‘님이 시기로’ ‘너무로구려’ ‘몰랏스로만’ ‘그립고야’ ‘기다리신가’ ‘가노라’ ‘소색이느뇨’ 등, 傳統속에 애정있는 語感을 살려 個人詩語로 사용하여 詩의 정서를 높이고 있다.

〈그속에 든 꿈이 더 재앙스럽소〉	「4」
〈이슬가차 고힌눈물을 손곳으로 깨치나니〉	「10」
〈밤ㅅ사람 그립고야〉	「14」
〈가을은 애닮다 소색이느뇨〉	「17」
〈뵈울적마다 꼭 한분이구려〉	「33」
〈마음이 어이면 늙으뇨〉	「47」
〈평생 못떠날 내집을 드렷노라〉	「53」

넷째, 의도적인 母音調和로써 詩語를 造語하고 있다. 이에는 음성모음조화와 양성모음조화가 있는데, 前者の例를 보면 ‘너룬’, ‘후젓이’, ‘버르르’ 등이 있다. 後者인 양성모음조화의 詩語들에는 밝고 밝으며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다음에 例를 들어 보고자 한다.

62) 韵의 添加의 用例.

① 母音첨가

금이슬 구울리흐트듯[46]/붓그려운 일이여라[36]/네우리 가부업계[22]/
햇발이 처음 쏘다오아[53]/보름넘은 달그리매 마음아이 쳐이로아[14]

② 子音첨가

어리석다 하심은 너무로구려[6]/꿈이련가 눈감고[23]/찬별을 보랏습니
다[28]

類型別	예
名 詞	오날, 가삼, 하날, 아참, 하로, 얼꼴
관 形 어	질기운, 아도
부 事 어	아조, 나도, 작고, 마조, 포실포실, 도론도론
서 語 어	도도네, ~하고나, ~하야, ~라나

다섯째, 復合語와 派生語의 造語使用이다.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意味가 復合되어 造語된 것과, 한 개의 意味에서 과생되어 造語된 생생하고 新鮮한 感이 있는 詩語들을, 使用하여 生動하는 詩的 美感을 높이고 있다. 먼저 復合語의 用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⁶³⁾

- ① 명사+명사 : 아츰날빛, 하날갓, 꿈발
- ② 명사+동사 : 눈불도는, 수심뜬, 바람솟긴
- ③ 명사+형용사 : 향맑은, 골불은
- ④ 부사+명사 : 헛보람, 가득찰랑
- ⑤ 동사+동사 : 몰고싸어, 떠나룬다, 시댔기다.
- ⑥ 형용사+명사 : 흰날의 한겨풀 푸른향풀
- ⑦ 형용사+형용사 : 회부얀, 향미로운
- ⑧ 한자+한글 : 千길, 山정괴, 上거지, 山허리

派生語로된 永郎의 造語들을 찾아보면 ‘보랏고, 오—매, 실타리, 조타리, 어며, 조을결, 조색이느뇨’ 등이 있다. 특히 形容詞에서는 다양한 과생어들을 볼 수 있는 데 ‘서어한, 어슨, 애끈한, 아름풋한, 포렴한, 아순풀한, 가늘한, 향미론’ 등이다. 이러한 형용사에서 <조매로운 꿈길에 살프시 슬니는듯>한 永郎 個人詩語의 뛰어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63) 復合語의 用例

구슬손/골불은/출산/마음실/떠실코/흐느겨가신다/안어걸으든

여섯째, 보조어 간 첨가에 의한 造語이다. 존칭·겸양보조어 간의 첨가로 詩的 분위기를 보다 한국적인 情感으로 돋구고 있다.

「바람이 부는대로 차자가오리」

흘린듯 고약하신 님이시기로

챙여나! 챙여나! 키를종금이

어리석다 하심은 너무로구려

『詩集』「6」全文(傍點筆者)

- 위의 詩에서 '차자가오리', '고약하신' '님이시기로', '하심은' 등은 겸양·존칭보조어 간을 사용한 詩語의 用例이다. 이밖에 존칭보조어 간을 使用한 詩行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내마음을 아실이／내혼자스마음 날가치 아실이／그래도 어메나 게실것이면〉
『詩集』「43」에서

〈황내업다고 버리실나면／내목숨 죽지나 마르시오〉『詩集』「32」에서

〈하날갓 닷는데 것봄이 사신가〉『詩集』「39」에서

〈그대는 호령도 하실만하다〉『詩集』「40」에서

〈山스풀에 흘히 우시다 너를파라가셨드라니〉『詩集』「52」에서

〈그대는 내 흥만이는 노래를 드르실까〉『詩選』「13」에서

〈새파란 쏘에 몸을 던지시니라〉『詩選』「57」에서 (傍點筆者)

그리고 겸양보조어 간의 詩語를 使用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뵈울져마다 꾹 한분이구려〉『詩集』「33」에서

〈외론밤 바람솟길 찬별을 보았습니다〉『詩集』「28」에서

〈붉었나이다〉

〈불태웠나이다〉

〈불수잇사오리까〉

〈접섭해 우웁내다〉『詩集』「45」에서

〈보鞬듯 감추었다 내여드리자〉『詩集』「43」에서 (傍點筆者)

이상의 用例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永郎은 우리 말의 독특한 특징인

존칭·겸양보조어 간을 그의 詩 속에 적절히 쓰고 있다.

일곱째, 永郎의 造語力은 의성어, 의태어에서 뛰어나다. 永郎의 새롭게 造語된 의성·의태어의 생생한 청자적, 시각적 心象은 대단히 新鮮한 感動을 表出하고 있다. ‘뚝뚝’, ‘즈르르’, ‘얼 Crowley’, ‘잠방거리는’, ‘넝닝’,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호동글’ ‘보실보실’ ‘토르륵 실으르’ 등의 의성·의태어들은 既成의 완고한 類型性에서 벗어나 詩人自身的 창조적인 造語로서 새로운 語感을 創出하고 있다.⁶⁴⁾

(3) 漢字語와 外來語의 쓰임새

永郎의 初期詩에서는 거의 漢字語를 使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가 固有語와 方言을 과감히 使用하고, 한글을 詩語로 사용하므로써, 國語美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경주한 사실로 지적할 수도 있다. 즉 永郎이, 詩文學派의 純粹抒情詩運動이 한글운동의 영향권 내에서 展開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당대의 시단의 유행어가 西歐的 관념어에 짙게 침윤된 漢字語투였음에도 불구하고 永郎은 특별히 그의 詩속에 핵심어로서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에만 간혹 정련된 漢字語와 外來語를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이는 그의 초기의 詩集인 『永郎詩集』에 수록된 작품 53편 가운데 28편을 차지하는 四行小曲 중에서 漢字는 ‘山, 千, 眼’의 단 석자 뿐인 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⁶⁵⁾

64) 의성어·의태어의 用例. []안의 수자는 『詩選』의 작품 번호임.

이 랑이 랑 햇빛이 갈나지고[4]/온실을 즈르르 모라서[6]/얼 Crowley니—는 훗
근한 내음[1]/청랑에 잠방거리는[8]/마음씨 낭 풍풍 쭈무러버리네[13]/토
르륵 실으르 동백한말 빠지나니[19]/호르 호르르 호르르 가을아침 수풀
이 호르르 버레가 호르르[19]/청명은 갑작히 으리으리한 冠을 쓰고
[19]/오! 비가 이리 쿨쿨풀 나리는 날은[48]/저 꼭조만 마조 호동글 사
라지면[53]

65) 四行小曲 28首에 들어 있는 漢字는 단 세字뿐임.

※ []의 수자는 『詩集』의 작품번호.

<동우인체 山길에 짓기도하네>[18]/<서른소리 한千마대 셋스면 시퍼라>
[30]

<보실보실 가을 눈(眼)이 그 나래를 치며>[34]

그리고 同詩集의 나머지 詩作品 35편에서도 27개의 漢字어휘가 쓰였을 뿐이다.⁶⁶⁾ 그러므로 『詩集』의 53편의 作品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휘는 총 30개 뿐인 셈이다.

中期本系列의 世運文化社版(71편)에 수록된 漢字延語彙數는 135개로 조사되었는데 同詩集에서는 漢字語는 本文에 써어 쓰지 않고 한글어휘 옆에 별도로 팔호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近年本인 文學世界社版에 실린 86편의 작품에서 조사된 漢字延語彙數는 225개이다. 中期本에 수록되지 않았던 15편의 작품에서 使用된 漱字語彙數만도 160여 개임을⁶⁷⁾ 볼 때 永

66) 『詩集』에 수록된 詩 35편에 들어 있는 漱字語彙는 27개 뿐임.

詩의 가슴[2], 산길로七十里[7], 銀河萬年[44], 千里로다[7], 五月어느 날·三百예에춘날[45], 衆香의 밤은돌·千年옛날·新羅의 아들이나·수미山나리꽃·瑤山·佛地菴[47], 降仙臺·湖水[48], 古風의 뒷마루[49], 바다는 銀장·銀장우에[51], 數千세월·후첫한 三夏·春香·王宮·古今島·南쪽·千里당아지·恨된우름·三更의 배우름·龜山[52](이상 27개의 漱字語彙)

67) 中期本系列 詩集이후에 刊行된 近年本 文學世界社版에 수록된 새 作品¹⁵편에서 조사된 漱字語彙(延語數)(159개)

- ① <吳오설 심>(0)
- ② <가야금>(3), 北/北/南邦
- ③ <江물>(5), 江/江/江/江/江
- ④ <偶惑>(2), 偶惑/幸福
- ⑤ <바다로 가자>(7), 濟州/獨木船/委/三年/滄浪/颺風/水平線
- ⑥ <새벽의 處刑場>(11), 處刑場/魔/太極旗/三年/下弦/鐘鼓山/太極旗/亡/祖國/處刑/生血.
- ⑦ <绝望>(26), 玉川/生血/十里江之江/前世/慘變/祖國/軍兵/槍/太極旗/青春/惡/毒酒/醉/軍兵/災/不純/政治/硫黃/四/不純/呪詛/鉛毒/政治/民族/希望.
- ⑧ <感激八·一五>(54), 煉獄/半世紀/大韓/三千萬/獨立/疆土/經緯度/高句麗/新羅/聖祖/天下/陽地/三千里/恨/英蘭土/奇蹟/民族/統領/聰慧/膽/盤石/民主保壘/倭/四年/萬民共和/世界憲章/大韓民國/民主憲法/土地改革/大西洋憲章/未治/四十八對六/六/鐵/帳/幕/獨裁/民主開放/明郎/人權平等/四十年/四年/百年/是非同志/前進/大義/永遠/三千萬/大義大韓/謀略/暗鬭/失地/恢復/數萬旗/百萬聰俊/地軸/盟誓.
- ⑨ <行軍>(5), 行軍/北/北/南邦/行軍.
- ⑩ <池畔追憶>(7), 池畔追憶/落葉/落葉/人生/白鳥/青春/人生.
- ⑪ <千里를 읊어온다>(21), 千里/千里/青雲/南山北岳/松栢/朗朗/青衣童子/八門 亂臣外寇/城/頽落/金石殿閣/香/才華/鐵馬/失行/處女/南山/北漢冠

郎의 詩가 後期詩로 오면서 빈번히 漢字語를 使用하였다고 지적된다.

한편, 外來語의 쓰임새를 보면, 永郎은 英文學을 전공하였고, 몇 편의 譯詩까지 紙上에 發表했음에도 그의 詩작품에서는 의도적으로 外來語의 사용을 漢字語와 마찬가지로 절제하고 있다. ‘에메랄드’, ‘천탁타’, ‘파스텔’, ‘포케트’, ‘풀·베를레느’ 등 5개의 外來語彙만이 『詩集』·『詩選』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이 使用된 詩行의 例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보드레한 에메랄드 알게 흐르는〉『詩集』「2」에서
 〈빈 포케트에 손찌르고 풀·베를레느 찾는날〉『詩集』「30」에서
 〈북은 오히려 천탁타—요〉『詩選』「58」에서
 〈오랜세월 시앗긴 으스름한 파스텔〉『詩選』「20」에서 (傍點筆者)

즉 永郎은 정련된 漢字語와 外來語가 아니면 그의 詩語로 쓰지 않았고, 外來語의 발음의 우리말 표기에 매우 조심하여 使用하였음을 미루어 보아 그가 詩語 한개의 선택에 있어서도 절차탁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永郎은 한글의 詩語使用에 주력하면서도 當代의 時代性을反映하는 漢字語와 流行하는 外來語 등을 적절히 駆使하므로써 그의 詩의 현실적인 긴장감을 확대한다.

岳/山/白馬黃金/喜悲交響

- ⑫ <어느날 어느때고>(1), 虛無
- ⑬ <五月恨>(6), 五月恨/月桂/青山/五月/五月
- ⑭ <琴湖江>(7), 琴湖江/脈脈/魚族/行列/江/季節風/位置
- ⑮ <墓碑銘>(4), 墓碑銘/碑/碑/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世運文化社版에 수록된 71편의 詩에 쓰인 漢字語延語彙數가 135개인데 文學世界社版에 수록된 새로 발견된 詩 15편에 쓰인 漢字語延語彙數가 160여개나 된다. 이것은 永郎이 後期詩에서 漢字語의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임.

68) 金永郎의 譯詩

- ① 하늘의 웃김(The Wishes for the Cloths heaven. <W.B. Yeats>)
- ② 이니스프리(The lake Isle Inisfree. <W.B. Yeats>)
- ③ 나치 반항의 노래<Weinert, Erich>

V. 結 語

詩文學派 永郎은 南道의 鄉土의 方言과 固有語를 정교히 다듬어 韓國的 감수성을 深化한 代表의 詩人이다. 또한 그는 한글 및 새로운 造語의 多樣한 驅使로 國語美를 啓發한 文學史的 공로를 지닌다.

그의 詩의 音樂的 특성은, 獨특한 韻感의 詩語를 使用함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律格의 띄어쓰기에서 나타난다. 즉 그의 詩에 나타난 韵律形式은 民謡調와는 다르게 一行 三音步律格 내지 四音步律格 띄어쓰기이다. 이처럼 새로운 韵律形式 속에서 鄉土性, 傳統性을 갖는 情感있는 詩語들로 造語된 永郎의 詩는, ‘詩가 言語를 媒材로하는 藝術’이라 할 때 그 藝術的 가치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永郎詩의 표기체계와 造語의 특징들이 時代와 社會의 상황변이에 따른 國語正書法의 變化 및 永郎 死後에 刊行된 詩集의 편찬자들의 무관심·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同詩集의 版本間에는 많은 差가 나타난다.

첫째, 띄어쓰기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永郎詩集의 初期本은 一行 三音步 내지 四音步格 띄어쓰기로 되었다. 그의 詩의 音步格 띄어쓰기의 韵律形式이 中期本에서 初期本과 다르게 변모되었다. 이것은 詩作 당시의 詩人의 의도를 감안하지 못한 詩集 편찬자들의 오류이다. 近年本에서는 現代 讀者들을 위해 現代國語正書法에 맞도록 表記한 版本과 永郎當代의 原本復元을 시도한 版本등이 있다.

둘째, 練字表記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初期本[詩文學社版]에서는 連綴式表記로 되어 있다. 이것은 永郎이 그의 詩語의 韵感을 살리려는 의도적인 練字表記로 지적된다. 한편 終聲表記은 單子音 12개(14개 단자음 중 ㅋ, ㅎ만 제외)와 復子音 ‘탸, 탸, 탸’ 3개 만이 使用되었고 ‘ㅆ’의 使用은 발견되지 않는다. 混綴·誤綴된 表記은 당시 文法體系의混

亂과 詩人의 連綴式表記와 方言 및 固有語 使用에서 결과된 오류인 것 같다. 中央文化社版에 이르러 終聲에 ‘ㅎ’, ‘ㅆ’ 그리고 ‘ㄴ, ㅈ, ㅊ, ㅋ’ 등의 다수의 復子音들이 使用되었음을 볼 때, 이는 詩文學社版(1935)에서 中央文化社版(1949)에 이르는 15년여의 時間이 흐름에 따른 國語正書法의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初期本의 永郎詩集의 表記體系가 版本이 바뀜에 따라 變化되어 永郎詩 本來의 美的 情緒를 變質시켜 놓고 있음이 中期版本에서부터 발견된다. 初期本대로의 連綴式 繼字表記로써만이 永郎詩에 내재되어 있는 國語美의 深化와 詩語의 音樂性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近年版에서 原典復元을 시도한 詩集이 刊行되었음을 다행한 일이다.

셋째, 永郎은 個人詩語를 특징적으로 驅使한 重要詩人 가운데 한 사람이다. ‘찢금／동우／어여／엽태／질기운／아배’ 등의 全羅方言과 ‘기둘나리／날다려／그립고야／우울내다／사벗나리’ 등의 固有語의 사용으로 情感의 애頓함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土俗의인 친근감을 유발하고 있다. 漢字語와 外來語의 쓰임새를 보면, 初期에는 아주 정련된 小數의 漢字語만을 使用하였다. 즉 ‘壁紙／欄干／長短／不或／太古／人生／三更／名鼓／動中靜’ 등 東洋의인 古風한 느낌을 주는 것과 ‘五月 어느날／三百예순날／千里길／千里밖／山울림／銀장／盈山／商쪽／수미山’ 등 한글과 漢字의 復合語로 造語한 것들을 사용하였다. 그의 四行小曲 29首에 사용된 漢字語가 ‘山／千／眼’ 등 단 석자임을 볼 때 永郎이 小數의 漢字語만을 정련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後期詩로 오면서 永郎은 그의 詩形態의 變化와 함께 빈번히 漢字語를 사용하였음이 발견된다. 한편 外來語의 사용은 漢字語와 마찬가지로 매우 절제돼 있다. ‘에메랄드／파스텔／呛 닉타－／포케트／풀…베를레느’ 등 當代 時代性을 반영할 수 있는 外來語 또는 외국어만을 적절히 驅使함으로써 現實의 긴장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同詩集은 版本間에 連綴, 誤綴, 混綴, 誤植 및 脫字, 그리

고 改作에 따르는 句, 行, 聯의 잘못된 區分 등과 人稱상의 부주의 등에 의한 오류들이 지적된다.

이러한 版本에 대한 書誌的인 研究가 文學研究 그 자체일 수는 없으나 격동기를 거쳐온 우리 新文學史研究에 있어서는 필요불가결의 작업이 된다.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永郎의 本格的 연구에 앞서 선결돼야 할 문제점이 어느정도 밝혀졌으리라 생각된다. 요컨대 永郎 當代에 刊行된 初期 本系列은 原本이 될 수 있으나 두 詩集間에 그 內容上의 편차가 심해原本으로 確定하기에 미흡하다.

中期 本系列은 永郎 死後에 刊行되었으며 그 表記體系가 많이 변모되어 確定原本으로 삼기에는 그 타당성이 회박하다.

近年本으로 知識產業社版은 詩作品 外에도 解說 및 年譜를 싣고 있어永郎研究書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지만 現代正書法에 맞춘 표기체계로 간행된 큰 결함을 지니고 있다.

1981년 8월 文學世界社版으로 刊行된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原典의復元을 시도하고 있으며 最多數(86편)의 詩作品이 수록된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된다. 뿐만아니라 그외에도 永郎의 散文集, 評傳 및永郎研究資料集 등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깊이있는 金永郎全集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同詩集은 기왕의 다른 詩集들에 비해 確定本으로서의 要件을 가장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同詩集도 작품의 題目 使用 문제, 改作된 作品에 대한 論議 그리고 轉載 과정에서의 印刷上의 誤記, 誤植 등에 대한 問題를 남겨놓고 있다.

參 考 文 獻

金大幸(1984), 韓國詩의 傳統研究, 開文社.

金容稷(1969), “詩文學派研究”, 韓國近代文學研究,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金容稷(1974), “南道가락의 純粹熱情”, 文學思想 24.

金容稷(1974),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 金允植(1978), “永郎論의 한 행방”, 心象 2-12.
- 金允植(1978), 韓國現代詩論批判, 一志社.
- 金載弘(1982), 萬海韓龍雲研究, 一志社.
- 金澤東(1977), 韓國現代詩人研究, 民音社.
- 金澤東(1981), 金永郎全集·評傳, 文學世界社.
- 김 현(1981), 韓國現代詩文學大系 7, 知識產業社.
- 南亭媛(1974), “새 資料로 본 永郎의 世界”, 文學思想 24.
- 朴龍喆(1930), “고귀한 感情과 表現의 능력”, 詩文學 창간호.
- 徐廷柱(1962), “영랑의 일”, 現代文學 8-12.
- 徐廷柱(1950), “永郎의 抒情詩”, 文藝 2-3.
- 吳世榮(1980), 韓國浪漫主義研究, 一志社.
- 尹戶炳(1981), 永郎詩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 李明子(1974), “새 調查, 永郎의 作品目錄”, 文學思想 24.
- 李姓敎(1974), “情緒의 극치”, 心象 2-12.
- 李姓敎(1973), “金永郎研究”, 성신여사대인문과학연구논문집.
- 鄭珣永(1975), “金永郎論”, 語文論集, 中央大學語文學會.
- 鄭漢模(1964), “現代詩人論”, 文學春秋 1-9.
- 鄭漢模(1975),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 Herbert, Reed (1955), *Collected Essay in Literary Criticism*, London.

〔資料〕

- 詩文學(1930), 創刊號, 2號, 3號, 詩文學社.
- 文學(1934), 創刊號, 3號, 詩文學社.
- 永郎詩集(1935), 詩文學社.
- 永郎詩選(1949), 中央文化社.
- 韓國詩人全集卷 5(1956), 新丘文化社.
- 永郎詩集(1959), 博英社.
- 永郎龍兒시선(1970), 世運文化社.
- 모란이 피기까지는(1975), 三中堂.
- 韓國現代詩文學大系 7(1981), 知識產業社.
- 모란이 피기까지는(1981), 文學世界社.